

보도

서울캠 단과대학 대표 선출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서울】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특히 3파전이었던 무용학부와 경선을 치른 정경대학의 경우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됐다. 하지만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과 등은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내년 3월로 연기됐고, 경영대학은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율이 45.3%에 그쳐 선거가 무산됐다. 현재 문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최초 선거기간에 입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공고를 진행하고 지난 28일 각각 1개 선본이 등록해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선자 명단

간호과학대학

투표율 52.9% 득표율 86.5%
정 : 김민정(간호학 2013)
부 : 서예진(간호학 2013)

무용학부

투표율 88.1% 득표율 64.1%
정 : 세키미찌요(한국무용 2013)
부 : 백수연(현대무용 2013)

미술대학

투표율 71.4% 득표율 88.8%
정 : 단재민(회화 2010)
부 : 맹도영(조소 2010)

음악대학

투표율 70.7% 득표율 89.3%
정 : 라재혁(작곡 2012)
부 : 박병선(기악 2011)

이과대학

투표율 63.9% 득표율 86.3%
정 : 김준용(정보디스플레이학 2010)
부 : 정유진(수학 2013)

약학대학

투표율 61.3% 득표율 67.9%
정 : 박건하(한약학 2013)
부 : 기민성(약과학 2011)

정경대학

투표율 60.4% 득표율 50.64%
정 :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부 : 정대성(사회학 2009)

호텔관광대학

투표율 58.6% 득표율 85.8%
정 : 이건영(조리·서비스경영학 2013)
부 : 최자선(외식경영학 2013)

*단과대학별 투표권자와 개표요건 등 선거 시행세칙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복되는 생협 설립·SPACE21 공약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국제캠 총학 공약 분석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최승욱 기자 dotori14@knu.ac.kr

#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생회(총학) 선거 던분에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선거운동 열기로 가득 차 있다. 두 선본 모두 투표권자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다. 수강신청 개선·취업프로그램 확대는 두 선본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특기할 만한 공약으로는 'Klass Up' 선본의 '생활협동조합 설립추진' 공약과 '친 KHU' 선본의 '21세기한국대학 생연합(한대련) 탈퇴에 대한 총투표 실시' 공약을 들 수 있다. 우리신문은 선거철을 맞아 각 선본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짚어봤다.

양 선본 모두 올해의 긴축재정 여파로 축소된 문화탐방·기행 등 학내 프로그램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각 선본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은 판이했다. 'Klass Up' 선본은 '총장배 학술공모전 진행', '기업 자체 주관 외부 프로그램 학내 섭외' 등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기존의 학교 정책이 학사제도에 편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친 KHU' 선본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추진' 등과 같은 평소 학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lass Up' 자체 연계로 재정확충, '학내 재정 감안' 현실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Klass Up' 선본은 각각 '취업프로그램 전공별 운영', '전공별 졸업생 멘토링' 등을 제시했고 '친 KHU' 선본은 '자소서 첨삭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면접 클리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업 진로지원처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양 선본 모두 희망과목담기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희망과목담기제도를 통해 나타난 학생

들의 수강수요가 강의 개설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lass Up' 선본은 '희망과목담기 수요 강의 개선 현실화'를 제시하는 한편, 줄어든 교양수업 과목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는 사안과,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과목 등의 수강신청 실패 시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친 KHU' 선본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대신 학생과 학교 측이 대화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 학교 측과 함께 수강신청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일반론적 공약을 내세웠다.

친 KHU' 한대련 탈퇴 투표 실시

"구성원 의사 물은 뒤 결정하겠다"

'Klass Up' 선본은 장학 제도와 관련해 장학금 정보 통합관리, 성적장학금 기준제 시,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금 신설 등 의 공약을 내놨고, '친 KHU' 선본은 비단 성적순으로 받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지원 장학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을 도입·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선본의 장학금 관련 공약은 현실에 비춰 크게 유의미하지는 못한 형편이다. 먼저 'Klass Up' 선본이 내세운 공약의 경우, 현재 장학금 정보는 장학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통합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또 대부분의 성적장학금의 경우에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성적 순위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기준 제시'라는 공약이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Klass Up' 선본과 '친 KHU' 선본이 유사하게 내놓은 '장학금 신설 및 확충' 안의 경우엔 두 선본 모두 수혜 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는 등 디테일에서의 한계점이 눈에 띈다. 양 선본이 장학금 관련 공약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Klass Up' 선본은 '자자체 재정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 주관 프로그램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학내 재정 악화문제를 자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재정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가운데 나름의 새로운 돌

〈국제캠 주요 공약 비교〉

Klass Up

- 생협 추진
- 자체 연계 사업
- 총장배 공모전
- 후마니타스 계열별 전문교수 초빙

친 KHU

- 수강신청 개선
- 기숙사 상벌점제 완화
- 자자회비·학생회비 공개
- 한대련 탈퇴 총투표
- SPACE 21 촉진
- 등록금 동결
- 직거래 장터 개최 추진

〈최근 반복 등장하는 주요 공약〉

2011 선거	2012 선거	2013 선거
• 반값등록금	• 등록금 인하	• 수강신청 제도 개선
• SPACE21(캠퍼스종합개발) 착수	• 학사제도 개편	• SPACE21 연내착공
• 장학금 가이드북 배포	• 생협 설립	• 강의 대여 시스템 개설

파구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친 KHU' 선본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장학금 제도의 재정비·행사비용 축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보가 기대되는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lass Up' 선본은 국제캠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공약을 재등장시켰다. '생협 설립'은 앞서 당선된 제2011, 2013, 2014년도 총학 역시 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으나 잇따른 공약 이행 실패로 설립되지 못했다. 생협 설립은 그동안 출자금을 마련하는 문제 및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전망 등의 여러 난제가 얹혀 좌초돼온 안건인 만큼, 이번의 공약이 이전의 전철을蹈는 구호성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면밀하고 세심한 준비와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친 KHU' 선본은 '21C한국대학 생연합'(한대련) 탈퇴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공약을 내세웠다. 그동안 44대 총학 정용필(기계공학 2006)·45대 김나래(기계공학 2008) 회장이 제8대·9대 한대련 의장을 맡을 정도로 총학은 한대련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따라서 이 같은 공약은 기존의 운동권이 학내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생들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친 KHU' 선본은 "무조건적인 탈퇴선언이 아닌 '총 투표'를 통한 학생 구성원의 의사를 물어 본 뒤에 한대련 탈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또 SPACE21사업에 대해 '친 KHU' 선본은 '학생, 교수, 대학본부와의 빠른 협의 진행'을 통해 SPACE21사업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SPACE21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논의는 일단락이 된 상태인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정원	장소	명여강	비고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1-01	미분방정식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8:00~11:45	57	전221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1-02	미분방정식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8:00~11:45	57	전223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2-01	미분적분학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9:00~11:45	46	전001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2-02	미분적분학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13:00~16:45	46	전001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3-01	미분적분학2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8:00~11:45	46	전002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3-02	미분적분학2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9:00~11:45	46	전003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3-03	미분적분학2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9:00~11:45	46	전003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MTH1004-01	선형수학	전민기·김경수 후민기·박재형	교시	08:00~11:45	44	전017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HY1001-01	물리학	이선중 김선경	교시	08:00~11:45	60	교008	2015/01/05~2015/01/14	
광고대학	전공선택	APHY1003-01	물리학(설명학)[0][0]	김선경	교시	08:00~11:45	30	교1407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HY1003-02	물리학(설명학)[0][0]	김선경	교시	11:00~12:50	30	교1405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HY1003-03	물리학(설명학)[0][0]	김선경	교시	11:00~12:50	30	교1407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HY1003-04	물리학(설명학)[0][0]	김선경	교시	11:00~12:50	30	교1405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HY1004-01	일반물리	김민기 김민기	교시	08:00~11:45	60	교1511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CH1002-01	화학및설명학[0][0]	이성렬 이성렬	교시	11:00~12:50	30	교1510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CH1003-01	화학및설명학[0][0]	이성렬 이성렬	교시	11:00~12:50	30	교1510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CH1004-01	화학및설명학[0][0]	이성렬 이성렬	교시	11:00~12:50	30	교1510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전공선택	APCH1005-01	화학및설명학[0][0]	이성렬 이성렬	교시	11:00~12:50	30	교1510	2014/02/22~2015/01/02	
광고대학										